

## ◀ 연재 II ▶

# 先史時代의 食生活과 口腔狀態(II)

카톨릭의과대학 외래교수

기창덕 치과의원 원장

의학박사 기 창 덕

### 3. 靑銅器時代의 食生活과 口腔症狀

1923년 金海貝塚을 발굴한 梅田末始의 보고<sup>1)</sup>에 金海貝塚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화단계를 金石併用期라하고 靑銅器時代가 없이 新石器時代에서 바로 鐵器時代로 넘어갔다고 보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들 있었다. 그러나 최근 韓國의 靑銅器時代의 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뚜렷한 靑銅器時代의 문화가 드러나게 되었다<sup>2)</sup>.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발굴 보고된 靑銅器時代의 유적은 南韓地方에서만 90여곳<sup>3)</sup>이고 北韓地方에서도 상당한 수의 유적을 발굴한 것으로 안다. 이들 유적에서 발굴되는 특징적인 유물로는 細形銅劍, 銅鉞, 細紋鏡등을 들 수 있고 靑銅器가 나오는 墓制는 支石墓, 石棺墓, 土壙墓, 甕棺墓등이다. 토기로는 팽이형(角形) 토기들이 주로 출토되어 이를 사용한 無紋土器人들의 시대라는 것도 알려졌다. 석기는 磨製石器, 半月刀등이 출토되어 한때 靑銅器 연구에 혼란을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다<sup>4)</sup>.

靑銅器時代의 년대는 韓國의 靑銅器 存在說에 따라 B.C.6세기<sup>5)</sup> B.C. 5,6세기<sup>6)</sup> B.C. 5세기후반<sup>7)</sup>등을 주장하나 B.C. 2000년후반<sup>8)</sup>까지 올려 보는 학자도 있다.

역사적으로 殷代, 周代, 春秋時代, 戰國時代까지를 靑銅器時代로 본다면 이 시기에는 청동기무기로 전쟁을 한 기록이 있으며 찬란한 청동기문화시기였음을 잘 알고 있다. 또 殷代의 甲骨文에는 “耕”자가 있다고 한다<sup>9)</sup>. 이는 殷나라때가 이미 農耕社會였음을 말해주는 것이요 高度의 文化를 形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殷나라의 靑銅은 銅, 朱錫, 鉛의 합금인데 羅津 草島의 靑銅은 銅 59.93% 朱錫 22.30%, 鉛 5.11%, 亞鉛 13.705라는 분석보고<sup>10)</sup>로 보아 우리나라의 靑銅은 亞鉛이 함유된 殷나라의 것과 달라 문화권이 다르다는 것도 알려졌다. 石製의 狩獵具나 漁撈用具의 변천도 엿 볼 수 있으나 靑銅劍, 靑銅화살촉, 銅鉞는 무기로서의 용도외에 발견된 狩獵具였을 것이다. 狩獵으로 얻은 육류와 가축을 길러 얻은 육류, 그리고 農耕具로 농사를 지어 생산한 곡물을 舊石器말 부터 출토되는 화덕터의 존재와 전석, 시루의 이용은 원시적인 조리법을 탈피한 食生活의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會寧五洞<sup>11)</sup>에서는 탄화된 피와 기장, 팥, 수수, 콩같은 곡물과 가축인 소의 뼈가 나왔으며 美松里<sup>12)</sup>에서는 개의 뼈 호남리<sup>13)</sup>에서는 조, 기장, 수수, 콩과 벼도 나왔다. 여주 欣岩里<sup>14)</sup>에서는 탄화미, 겉보리, 조, 수수, 東萊 五倫洞<sup>15)</sup>에서는 탄화된 피가 나왔으며 楊平 八堂水沒地區<sup>16)</sup>에서는 밀바닥에 콩과 팥의 壓紋이 있는 無紋土器가 출토되었다. 西浦項의

상층<sup>16)</sup>과 草島<sup>18)</sup>, 五洞<sup>11)</sup>에서는 시루가 나왔고 深村里<sup>19)</sup> 石灘里<sup>20)</sup> 新興洞<sup>21)</sup>에서는 팽이형 토기바닥 중앙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시루가 출토되었다. 또 松菊里<sup>22)</sup>에서는 개량된 화덕터와 貯臟穴, 조리기구인 전석 석추 등이 출토되어 食生活의 발전상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발전된 이 시대의 食生活이 당시의 인간의 口腔이나 齒牙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靑銅器時代의 유적에서 人骨이 출토된 곳은 양덕리<sup>23)</sup> 上紫浦里<sup>24,25)</sup> 中島<sup>26)</sup> 黃石里<sup>27)</sup> 達城 辰泉洞<sup>28)</sup> 晋陽 大坪里<sup>29)</sup>등이고 이 밖에 會寧 五洞<sup>11)</sup>, 介川 墨房里<sup>30)</sup>, 茂山 虎谷<sup>31)</sup> 雄基 西浦項<sup>32)</sup>, 五德里<sup>33)</sup>, 운포리<sup>34)</sup> 德川 勝利山<sup>35)</sup>등에서 사람뼈의 부분골편이 출토되었다한다.

이들중 악골이나 齒牙만이라도 출토된 기록이 있는 문헌을 찾아 소개하면 1962년 黃石里 제13호 지석묘<sup>27)</sup>에서 출토된 古墳骨로 사진으로는 거의 완전한 1체구의 人骨이나 보고서에는 “……필자가 입수하였을 때에는 齒牙및 下顎骨은 분실되어 있었고 안면두개골은 세편으로 파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악골 및 齒牙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達城 辰泉洞의 支石墓<sup>28)</sup>에서 출토된 人骨은 3호 石棺의 B棺내에서 두개골파편과 齒牙 11개 그리고 대퇴골의 골편 몇개를 확인하였는데 이들 齒牙 11개 중 6개는 파손이 심해 알아볼 수 없고 나머지 5개는 齒根이 없고 齒冠만 남아 있는 犬齒 1개, 小白齒 2개, 大白齒 2개로 齒冠의 마모가 거의 없는 완전한 법랑질과 상부만 남은 상아질을 가진 비교적 작은 齒冠들이었다. 齒牙의 형태로 보아 20세 전후의 여성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會寧 五洞<sup>11)</sup>, 介川 墨房里<sup>30)</sup>, 五德里<sup>33)</sup> 운포리<sup>34)</sup>등에서는 人骨片과 齒牙가 몇개씩 나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자세한 소견이 없어 이들의 상태는 알 길이 없다. 茂山 虎谷<sup>31)</sup>에서 출토된 성인 여성의 두개관과 일부의 안면골 및 사지골과 성별을 구별하기 어려운 노인의 골편에서 성인 여자의 안면골의 소견을 소개하며 좁은 관골공과 현대인과 별차없는 口蓋長과 幅, 비교적 좁은 특징적인 안면상부, 특이한 하악지와 하악절흔등을 들어 茂山人으로 호칭하였고 齒牙는 상악좌측의 第2小白齒, 第1大白齒, 하악의 좌측 第1, 2大白齒와 우측 犬齒 第1大白齒가 보존되어 있으며 심한 마모로 齒冠 1/2정도만 남아 있고 하악우측의 第3大白齒가 맹출중이었다. 골용기 골흡수등으로 보아 노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西浦項遺跡 靑銅器時代層<sup>32)</sup>에서 출토된 두개관 2개와 같이 나온 두골에는 하악좌측 第1大白齒만이 빠진 보존상태가 좋은 것이었다. 이 두골은 외형이나 특징으로 보아 성인 남자의 것이다. 두개는 중등도로 크고 대체로 견고하고 무거우며 골벽이 두껍다. 하악골은 크고 무거우며 하악체는 두껍고 하악지는 넓으며 하악절흔은 얇다. 齒牙는 상하 모두 28개로서 智齒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교합은 감자 교합형이며 심하게 마모되어 3~4도 인 것도 있다. 순측이 더 마모되어 있고 교합면은 평면을 이루고 있다고 증상을 기록하고 “치아의 교모상태로 보아 당시의 생활모습을 어느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다.

德川 勝利山の 靑銅器時代文化層<sup>35)</sup>에서 발굴된 墓地와 居住地에서 사람뼈들이 무질서하게 출토되었다. 人骨은 두골이 5개, 하악골이 5개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한것들이었다. 두골에 붙어 있는 齒牙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고 하악골(남자 2, 여자 3)과 하악골에 잔존되어 있는 齒牙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으나 1예를 제외하고는 교모상태외에 악골과 齒牙의 병인적 증상등은 여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1예 즉 하악골(No 256)에 관해서는 우식치와 발치흔의 기록이 있다. 이 하악골은 25~30세의 여성의 것으로 양측 第2大白齒가 결손되어 있는데 발치와가 이미 완전치유되어 있고 우측 第3大白齒는 우식으로 인하여 법랑질벽만 남아 있고 좌측 第1大白齒도 우식으로 협측에 큰 우식와가 되어 있었다. 교합면은 교모로 평면을 이루고 있고 중절치와 측절치, 견치도 교모로 인해 齒冠이 우묵하게 패어들어가 있어 둘레에 법랑질이 예리하게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결손치도 우식으로 인해 발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소견을 적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적은 수의 齒牙로 食生活의 변천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출토된 食生活과 관련이 있는 유물로 보아 원시적인 조리법을 벗어난 靑銅器時代의 食生活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으리라 믿어진다. 靑銅器時代유적에서 발굴된 모든 人骨에 남아 있는 83개의 齒牙와 13개의 악골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심한 교모증과 대구치교합면과 협측에 발생한 우식치 2개와 발치와 2곳(4%)으로 이루어 볼 때 식생활에 큰 발전은 엿보이나 원시적인 음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굳은 음식물 즉 섬유성, 경질성, 또는 각질성의 음식물로 충분히 조리되지 못한 것도 있었음이 짐작된다.

우식을 위시한 여러가지 질병 즉 齒牙周圍炎, 齒髓炎 齒根端炎, 骨折, 囊腫등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되나 우식된 齒牙, 齒牙를 발거한 흔적과 食生活에 따르는 齒牙교합면의 마모 즉 교모증 정도만이 관찰될 뿐이며 이들 질환에 대한 치료행위도 발치 이외는 엿 볼 수 없다.

#### 參 考 文 獻

- 1) 梅原末始, 濱田耕作:〈金海貝塚發掘調查報告〉大正九年度古跡調查報告 1, 45. 1920.
- 2) 金貞培:〈韓國靑銅器文化의 史的考察〉韓國史研究 6, p.1-33, 1971.
- 3) 文化財研究所:〈遺跡發掘調查年表〉(1946-1985) 1986.
- 4) 李清奎:〈墓制와 各遺物의 形式에 대한 考察〉韓國史論 13, p.515-531, 1981.
- 5) 金榮來:〈韓國靑銅器文化의 年代上限〉全北遺跡調查報告 8, p.3-36, 1978.
- 6) 金元龍:〈12臺營子의 靑銅短劍墓; 韓國靑銅器文化의 起源問題〉歷史學報 16, p.109-121, 1961.
- 7) 尹武炳:〈韓國靑銅器遺物의 研究〉白山學報 12, p.59-134, 1972.
- 8) 金용간:〈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년대론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고고미술 64(2), 1964.
- 9) 李盛雨:〈殷代의 農耕〉高麗以前 韓國食生活史研究, 鄉文社, p.96, 1986.
- 10) ———:〈靑銅器文化의 流入〉上揭書, p.95, 1986.
- 11)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7집, p.5-62, 1960.
- 12) 김신규:〈미송리동굴의 동굴유물에 대하여〉문화유산 6, p.11, 1961.
- 13) 김용간, 석관준:〈남경유적에 관한 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사, 215p, 1984.
- 14) 崔夢龍:〈驪州欣岩里 先史聚落址-南漢江流域의 先史文化研究-5〉精神文化研究 여름, p.149-169, 1984.
- 15) 金廷鶴, 鄭燈元:〈五倫臺 古墳群 發掘報告書〉釜山大學校博物館, 57 p, 1973
- 16) 이용조, 손보기:〈양평군 양근리지역, 양덕리지역 유적 발굴 보고〉八堂. 昭陽댐 水沒地區 遺跡發掘 綜合調查報告, p.145-167, 1974.
- 17) 김용간, 서국태:〈서포항 원시유적 발굴보고〉고고민속논문집 4, p.108-184, 1972.
- 18) 과학원:〈라진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서〉유적발굴보고 1, p.6-51, 1956.
- 19) 황기덕, 이원근:〈황주군 심촌리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보고〉고고민속 66(3), p.32-42, 1966.
- 20) 이원근:〈석탄리 원시유적 발굴보고〉고고민속 65(3), p.28-39, 1965.
- 21) 서국태:〈신흥동 팽이그릇 집자리〉고고민속 64(3), p.35-45, 1964.
- 22) 國立博物館:〈扶餘松菊里遺跡發掘調查既報〉年報 5, 서울大博物館, p.56-61, 1977.
- 23) 이용조:〈양평 양덕리 고인돌 발굴 보고〉韓國史研究, 11, p.55-100, 1975.
- 24) 秦弘燮, 崔淑卿:〈楊平郡 上紫浦里 支石墓 發掘報告〉八堂, 昭陽댐 水沒地區 遺跡發掘 綜合調查報告, p.32-51, 1974.
- 25) 鄭永鎬:〈楊平郡 上紫浦里 支石墓群 發掘報告〉上揭書, p.53-89, 1974.
- 26) 지건길, 이영훈:〈中島〉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5책 국립중앙박물관, 1983.
- 27) 羅世振, 張信堯:〈黃石里 第十三號 支石墓에서 出土한 古墳骨의 一例〉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p.126-135, 1967.

- 28) 姜仁求 : <達城 辰泉洞의 支石墓> 韓國史研究 28, p.39-66, 1980.
- 29) 趙由典 : <慶南地方의 先史文化研究 - 晉陽 大坪里遺跡을 中心으로 -> 考古學 卷5, 6합집, p.1-140, 1979.
- 30) 김기웅 : <평안남도 개천군 묵방리 고인돌 발굴 중간 보고> 고고학자료집 제3집, p.64-75, 1963.
- 31) 박기하 : <무산 범의구석 원시 유적에서 나온 인골에 대하여> 고고민속 65(3), p.50-54, 1965.
- 32) 박기하 : <웅기 서포항 원시 유적에서 나온 인골> 고고민속 66(2), p.28-30, 1966.
- 33) 석관준 : <오덕리고인돌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제4집, p.74-118, 1974.
- 34) 박진욱 :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 조사보고> 고고학자료집 제4집, p.165-182, 1974.
- 35) 고고학연구소 : <청동기시대 문화층; 덕천 승리산유적 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 제11집, p.51-85, 1978.

#### 4. 鐵器時代의 食生活과 口腔症狀

韓國의 鐵器時代의 문화는 국가의 기원과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靑銅器時代에 뒤이어 등장한 鐵器時代는 국가의 출현까지가 대상기간이 되는상 싶다. 고고학적 유물과 관련시키어 明刀錢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鐵器時代의 상한으로 삼아 온것 같으나 최근 鐵器時代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明刀錢이 淸川江을 한계로 이북에서만 출토됨을 알게 되어 전국적으로 출토되는 鐵器의 그 상한시기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sup>1)</sup>.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鐵器時代 유적은 南韓지방에서만 35여곳<sup>2)</sup> 北韓지방에서도 상당수의 유적지가 발견되어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들 중 食生活과 관련이 있는 狩獵具, 漁撈具 그리고 農耕具와 殼物이 출토된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면 新石器時代부터 출토되는 반월형돌칼은 茂山虎谷<sup>3)</sup>, 加平 馬場洞<sup>4)</sup>, 金海 府院洞<sup>5)</sup>, 中原 荷川里<sup>6)</sup> 등의 동굴이나 혈거지, 패총등에서 출토되었고 또 함께 골각기인 송곳과 화살촉도 나왔다. 鐵器로는 茂山 虎谷<sup>3)</sup>에서 철제자귀, 鐵刀子, 渭原 龍淵<sup>7)</sup>에서는 명도전, 쇠낫, 반월형쇠칼, 쇠괘이, 쇠보습, 金海 府院洞<sup>5)</sup>에서는 화살촉, 쇠낫, 철제자귀, 刀子, 梁山貝塚<sup>8)</sup>에서는 화살촉, 송곳, 能川貝塚<sup>9)</sup>에서는 철제자귀, 쇠낫시바늘, 쇠낫, 그리고 馬山の 城山貝塚<sup>10)</sup>에서는 오주전과 함께 쇠낫시바늘, 화살촉등이 출토되었다.

調理用具로는 中江郡 土城里<sup>11)</sup>, 上老大島貝塚<sup>12)</sup>에서 맷돌이 나왔고 江西태성리<sup>13)</sup>, 加平 梨谷里<sup>14)</sup>, 馬場里<sup>4)</sup>, 楊坪 大心里<sup>15)</sup>, 春川 中島<sup>16)</sup>, 金海 府院洞<sup>5)</sup>, 馬山 城山貝塚<sup>10)</sup>, 鎭海 態川貝塚<sup>9)</sup>, 釜山 多大浦貝塚<sup>17)</sup>에서는 시루가 나왔다. 靑銅器時代까지 전국적으로 많이 보이던 전석이 소멸되고 대신 위에서 말한 맷돌의 지속적인 출토와 靑銅器時代대 드물게 나왔던 시루가 많이 출토됨은 調理具의 변천을 말해준다고 본다. 殼物로는 加平 馬場里<sup>4)</sup>에서 밭벼의 씨가 출토되었고, 金海 府院洞<sup>5)</sup>에서는 벼, 밀, 보리, 조, 콩, 팥등이 소량씩 출토되었다. 또 中原 荷川里<sup>6)</sup>에서는 탄화보리가 출토되었다. 家畜으로는 茂山 虎谷住居址<sup>3)</sup>에서 돼지의 뼈가 출토되었고, 中江의 土城里<sup>11)</sup>에서는 개, 돼지, 소, 말의 뼈, 金海 府院里<sup>5)</sup>에서는 말, 소, 돼지에 뼈가 나와 鐵器時代 초기에 이미 목축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생전의 탈락된 것으로 양측의 側切齒와 第1小臼齒가 결여된 쪽으로 경사되어 있다. 하악의 齒牙도 양측 大臼齒와 第1小臼齒가 결여된 쪽으로 경사되어 있다. 하악의 齒牙도 양측 大臼齒들이 이미 생전에 탈락된 것같이 치조가 완전 폐쇄되어 있고 우측의 智齒는 미맹출이고 第1小臼齒는 大臼齒들과 같은 결여를 보여주고 第2小臼齒와 左側中切齒는 사후에 탈락한 것 같다. 보고서에는 기록이 없지만 실물을 직접 관찰한 저자의 소견에는 치석의 부착으로 치조골의 심한 위축을 볼 수 있었고 교모도는 극히 심하여 상악 側切齒는 치관1/2도 못되게 되어 있었다. 35호 人骨은 장년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며 상악의 좌우 智齒는 미맹출이고 좌우 犬齒가 결여되어 있다. 우측 犬齒는 第1小臼齒와 함께 치조골도 결여되어 있다. 하악에 있어서는 우측 智齒는 미맹출이나 좌측 智齒는 그 옆의 第2大臼齒의 결손으로 근심축으로 경사 이동되어 있고 第2小臼齒는 결여되어 있으나 발치와가 치유되어 있지 않았다. 또 양측 中切齒는 사후탈락된 것으로 보이고 우측 側切齒와 犬齒의 발치와는 치유되어 있었다. 상악좌측 第1小臼齒와 하악우측 第1大臼齒는 우식으로 치근단농양을 일으키어 골흡수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악우측 犬齒의 결여에 대한 소견을 “상악우측의 犬齒와 第1小臼齒와 側切齒의 간격은 9mm이고 우측 第1小臼齒가 들어가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 간격을 메꾸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齒牙이며 결손부위나 치근의 길이를 고려하면 第1小臼齒가 심어져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하며 左側犬齒와 함께 우측 犬齒도 이미 오래전에 발치된 예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이 2예는 풍습적인 발치의 예임을 말하는 것이다.

濠洲, 아세아, 아프리카등의 미개인들은 현재에도 叉牙 또는 발치를 하는 풍습이 있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sup>27)</sup>. 이러한 풍습이 원시인의 人骨에서 형식적인 齒牙의 결여를 발견하고 이를 조사하여 先史時代부터 발치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28)</sup>. 中國에서는 6000년전 新石器時代부터 黃河 하류, 楊子江 중·하류, 朱江 하류 및 臺灣등지의 고대인들이 풍속 습관적인 발치를 하고 있었음을 출토된 人骨에서 밝혀졌고<sup>29)</sup> 日本에서는 만기즐문토기시대의 人骨에서 많이 발견되었다<sup>30)</sup>. 원시인의 그 풍습의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현대인의 민족학적 조사에 의하면 성인, 혼인의 예식으로 종교적 풍습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sup>31)</sup>.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고대인의 발치풍습도 같은 예식으로 본다면 발치가 행해지는 연령은 20세 전후로 짐작되어 勒島貝塚출토인골 제31호와 제35호의 여성인골의 상악좌우 犬齒의 결여는 시기적으로나 증상으로 미루어 보아 풍습적인 발치의 예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표된 풍습적 발치의 예이다. 1932년 樂浪古墳<sup>22)</sup>의 하악양측 中切齒 결여를 풍습적인 발치가 아닌가 하고 의심한 보고도 당시 黃河하류 지방의 풍습적 발치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樂浪人에게도 발치풍습이 있었으리라 짐작되어 韓半島에도 발치풍습이 있었음을 이 논문은 증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鐵器時代가 문화수준이 높은 부족사회였음으로 고유의 식품재료와 조리, 가공법을 개발하여 높은 食生活로 이 시대의 人骨에서는 현대생활인과 같은 구강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즉 齒牙의 齶蝕症, 咬耗症, 磨耗症과 그리고 齒周炎, 智齒周圍炎, 齒根端膿瘍등으로 인한 치조골의 병변상태, 치료목적의 발치와 시대적인 풍습적 발치등이 보고되고 있다.

#### 參 考 文 獻

- 1) 金貞培:〈韓國의 鐵器文化〉 韓國史研究 16, 1977. p.3-28.
- 2) 文化財研究所:〈遺跡發掘年表〉(1946-1985), 1986.
- 3) 황기덕:〈무산 범의구석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 논문집 6, p.124-226, 1975.
- 4) 金元龍:〈加平 馬場里 冶鐵住居址〉 歷史學報 50·51, p.111-137, 1981.
- 5) 沈奉謹:〈金海府院洞遺跡〉 古跡調查報告 5; 東亞大學博物館, 371p, 1981.
- 6) 金秉模, 崔虎林, 金明辰, 沈光注:〈中原 荷川里D地區遺跡 發掘調查 報告〉 忠州댐 水沒地區 文化

- 遺跡 發掘調査 報告書, p.231-274, 1984.
- 7) 강중강 : <요연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 자료집 4, p.64-73, 1976.
  - 8) 尹武炳 : <梁山貝塚 (多芳里貝塚) 考古美術 87, 一畧報-p.346 1976.
  - 9) 金廷鶴 : <熊川貝塚研究> 亞細亞研究 X-4, 1976.
  - 10) 金龍基, 鄭燈元 : <城山貝塚 發掘調査報告> 釜大史學 2, p.133-153, 1971.
  - 11) 김용남외—— :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연구> p.52-53, 1975.
  - 12) 金東鎬 : <上老大島 ; 上老大島貝塚 發掘調査報告> 古跡調査報告 8, 1984.
  - 13) 김용남외—— :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 p.81-92, 1975.
  - 14) 崔茂藏 : <梨谷里 鐵器時代 住居址 發掘報告> 人文科學論叢 12, 1979.
  - 15) 金元龍, 鄭永和, 崔夢龍 : <楊平郡 大心里 遺跡發掘報告> 八堂 昭陽댐 水沒地區 遺跡發掘 綜合調査報告, p.171-282, 1974.
  - 16) 지전길, 이영훈 : <中島>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 15, p.1-17, 1983.
  - 17) 김용기 : <多大浦貝塚 發掘調査報告> 釜大史學 2, p.113-131, 1971.
  - 18) 吳文甲 : <固城 東外洞貝塚 發掘調査報告-齒牙로 性別 年齡推定-> 古跡調査報告 第八冊, 東亞大學博物館, p.383, 1984.
  - 19) 韓炳三, 李建茂 : <朝島貝塚> 國立博物館古跡調査報告 9, p.68-106, 1976.
  - 20) 金元龍 : <소위 “瓦質土器”에 대하여 -原三國考古學上の 새問題-> 韓國考古學研究, 一志社, p.505, 1987.
  - 21) 李清奎 : <墓制 및 遺物의 形式에 對한 考案> 韓國史論 13, p.515-531, 1986.
  - 22) 今村 豊 : <樂浪古墳 一例> 人類學雜誌, 第48卷, p:38-42 1932.
  - 23) 김중열 : <韓國先師時代人 人骨의 個人識別-主로 齒牙를 中心으로-> 大韓齒科醫師協會誌, 14(11), p.923-928, 1976.
  - 24) 박선주 : <부산 “아치섬(조도)인골에 대하여”> 白山學報 第22號, p.83-125, 1977.
  - 25) 손보기, 박수연, 김중열, 박선주 : <부산아치섬 인골의 전검과 분석> <朝島貝塚> 國立博物館古墳調査報告 第9冊, p.68-106, 1976.
  - 26) 金鎮晶, 外 : <三千浦 勒島遺跡出土人骨像報> 伽倻通信 第17輯, p.7-25, 1983.
  - 27) 青島 攻 : <齒を拔く原始人> 物語 日本齒學史, 書林, p.7-25, 1983.
  - 28) 長谷部言人 : <日本石器時代拔齒風習の發達> 先史研究抜抄, よはひ草 第三輯, 思文閣, p.44-47, 1971.
  - 29) 周大成 : <中國口腔醫學發展簡史> 日本齒科醫史學會誌 8(3), p.1-19, 1981.
  - 30) 小金井良精 : <日本石器時代人に上犬齒を抜き去る風習ありしみに就て> 史前學雜誌 1(3), p.43-68, 1968.
  - 31) 山崎 清 : <齒に關する風習> 顔の人類學, 天佑書房, p.460-462, 1943.